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 괴롭힘 경험*

Bullying and Victimization with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노경선(Kyung-son Ro)¹⁾

심희옥(Hee-og Sim)²⁾

ABSTRACT

Data were collected from 514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1st to 6th grade with questionnaires on Parental Behavior, Bullying, and Peer-Victimization. Sixth graders reported the lowest perception of warmth-acceptance, and 1st graders reported the highest perception of rejection-restriction by fathers. Males perceived more parental rejection-restriction. Children perceived more warmth-acceptance from mothers, and they perceived more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from fathers. Parent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ullying and victimization. The Bullying/Victimization group reported the lowest parental warmth-acceptance. Both Victimization and Bullying/Victimization groups showed higher parental rejection-restriction than other groups. The Victimization group showed highest paternal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Victimization and Bullying/Victimization groups reported higher maternal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than other groups.

Key Words : 부모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또래 괴롭힘 가해(bullying), 또래 괴롭힘 피해(victimization).

1. 서 론

긍정적인 또래경험을 하는 아동이 있는데 반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여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이 있는데 이러한 또래 괴롭힘으

로 인한 부적응으로 아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몇 년 전 한 일간지(한국일보, 2001)에는 급우들로부터 맞고 위협 당하고

* 본 논문은 2004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

²⁾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ee-og Sim, Division of Human Ecology, Child & Family Studies Maj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573-701, Korea Email : simh@kunsan.ac.kr

따돌림 당하는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또래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더욱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동아일보, 2004). 이처럼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또래 괴롭힘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래 괴롭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는 피해 아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즉, 피해 아동들은 우울감 및 불안의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와 외로움, 통제감 상실, 자신에 대한 취약감과 불안, 억제행동, 학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등교거부 등을 포함하여 학령기 동안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도현심, 1999; 양원경·도현심, 1999; Bjorkqvist, Ekman, & Lagerspetz, 1992; Boulton & Underwood, 1992; Egan & Perry, 1998;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84; Rubin & Asendorpf, 1993). 또한 사회적으로는 자기표현 능력의 부족, 위축된 행동, 회피적 행동, 엉뚱한 행동 등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부적절한 대인행동은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개인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규미·문형훈·홍해영, 1998).

그리고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는 피해 아동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낮으며, 비효과적인 설득전략을 사용하고, 굴복과 자신의 자원을 넘겨주는 것으로 공격자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해 아동은 그들을 더 쉽고 만만한 상대로 보기 때문에 또래 괴롭힘에 더 취약해져 또다시 괴롭힘을 받는 악순환을 겪게 되고 또래 괴롭힘

을 많이 당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걸거나 비효과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논쟁을 자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가해 상대를 화나게 하여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이들은 또래관계 내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이점숙·유안진, 1999; Olweus, 1978; Perry, Kusel, & Perry, 1988; Perry, Perry, & Kennedy, 1992; Perry, Williard, & Perry, 1990; Schwartz, Dodge & Coie, 1993). 이러한 부적응은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 그 시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며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Olweus, 1993) 그 심각성을 절감하게 한다.

또래 괴롭힘 피해아동만 부적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연구보다는 활발하지 않으나 연구들은 가해아동이나 가해와 피해에 많이 연루된 가해/피해 아동 역시 비관여 아동에 비해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고 한다. 가해집단은 다소간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행동이 많고, 가해/피해 집단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고, 품행 점수에서 가해/피해 집단이 가장 낮았고 이들은 피해집단 만큼이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교사보고에서 가해아들은 좌절 감내력이 부족하고 외현화 문제행동에 많이 연루되고, 또래와의 갈등 대처에도 미흡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통제의 소재가 외적이라고 한다(심희옥, 2001, 2002, 2003; 이민아, 1998; 이춘재·곽금주, 2000; 정태연·김인경·김은정, 2001; 한종철·김인경, 2000; Austin & Joseph,

1996).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 속에서 적지 않은 부적응을 경험하는 아동을 돕고자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문제의 기원(Smith & Myron-Wilson, 1998)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 관점에서 또래 괴롭힘을 이해하고자 한다.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라면 이를 먼저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탐색하기에 앞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며 학자에 따라 행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차이로 양육행동과 태도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박성연·이숙, 1990). 박영애(1995)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을 긍정적으로 보아 존중하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동을 대하는 부모행동을 말한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아동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아동을 불신하고 질책하는 부모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무관심하며 아동의 요구를 지나치게 허용해주는 부모행동을 말한다.

학령기 동안 아동의 인지적인 성숙이나 성에 따른 사회화의 차로 학령기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은 학년이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Finnegan, Hodes와 Perry(1998)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 고려한 4-7학년 연구에서 나이에 따른 차를 보고하는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은 모로부터 자기주장은 적게 격려 받고 덜

애정적인 접촉을 받으며 강요는 더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Block(1983)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사회화시킴을 보고하는데 부모들은 남아의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관계 증진적인 행동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수연(1985)은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Lytton과 Romney(1991)는 부모들은 신체적인 벌을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행했다고 하고, Finnegan, Hodes와 Perry(1998)는 모든 여아의 자기주장을 더 격려하고 여아에게 더 다정하며 거부의 위협은 남아에게 더 행한다고 한다. 이연숙(2002)은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남아가 모로부터 더 많은 통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자녀양육 방식에서 부와 모간의 차에 대한 연구로 Russell, Hart, Robinson과 Olsen(2003)은 학령기 이전 아동대상의 연구에서 모가 부보다 민주적인 양육을 더 많이 하고 부는 권위주의적 양육을 모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아동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있는데 학령기 아동은 부모 중 누가 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자녀양육에 부와 모가 다 필요하고 부모 양자간에 일치된 양육행동이 자녀의 훈육과 건강한 발달에 유익함을 생각할 때 중요한 질문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년차, 성차 및 부와 모간의 양육행동 차에 대한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는 최초의 환경으로 이 속에서 부모는 자녀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

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에서의 사회적 기술 습득은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mith와 Myron-Wilson(1998)은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정은 또래 괴롭힘 가해나 피해문제의 기원을 이해하고 그 문제의 변화나 예방을 위한 중요한 맥락이라고 한다. 즉 부모는 또래 괴롭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모는 아동이 가장 처음 접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아동의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관계를 익히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MacDonald & Parke, 1984; Olson, 1992;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 연구들은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은 안정적이고 자신을 가치롭게 여겨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면서 또래로부터 인정을 얻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덜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Perry 등, 1988). 반면 어머니와 거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거나 과보호적 양육행동 또는 부의 부정적인 태도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Finnegan, Hodges & Perry, 1996, 1998; Olweus, 1993; Troy & Sroufe, 1987). 또래 괴롭힘 가해와 가정의 빈약한 기능이 관련이 있고(Rigby, 1993),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된 아동은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보이며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다고 한다(Berkowitz, 1990). 또한 온정이 부족하고 처벌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강압적인 훈육을 하는 부모는 타인에게 더 공격적인 아동을 갖기 쉽다고 한다(Chamberlain & Patterson, 1995; Davies & Cummings, 1994; Dishion, 1990; Gottman &

Katz, 1989; Loeber & Dishion, 1984; Olweus, 1980). 이러한 비우호적인 공격성은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또래 괴롭힘 가해나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가정된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국내보고(안재진 2002; 이경남, 2001)도 있다.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로 양육한다고 지각한 경우 자녀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에 반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제, 거부적이라고 지각한 경우에는 자아개념이 낮았다(김희경, 1990; 임선화, 1988).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가 과도하게 처벌적이고 요구적이고 애정이 없는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녀는 지나치게 자기비판적이고 의기소침하다고 한다(이덕순, 1980).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발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일부 부모는 어떠한 기본적인 양육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문제아동의 어머니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더 비판적이며, 덜 온정적이고, 더 억압되어 있으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혜정, 1997). 모의 부정적인 정서와 민감성/긍정적인 지도가 학령전 아동의 사회적인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도 한다(권연희·박경자,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절한 또래관계인 또래 괴롭힘 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기반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모와는 이루기 어려우나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학령기의 원만한 또래관계는 아동의 발달

에 매우 중요하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래관계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요구되고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주로 또래 괴롭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 최근 가족의 축소, 핵가족화와 어머니의 취업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게 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 또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와 모 각각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또래 괴롭힘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 1.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학년별 차이가 있는가?
- 1.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
- 1.3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경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1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가해·피해 경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2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 도시인 K시내의 B초등학교 전교생으로 한 학년에 3학급씩(1학급 29명) 총 18학급의 519명이었다.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51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자료를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80문항의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척도를 안재진(2002)이 축약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각각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온정·수용(21문항), 거부·제재(14문항), 허용·방임(8문항) 세 요인이 43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더 온정·수용적이고, 더 거부·제재적이며, 더 허용·방임적임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온정·수용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노력 하신다'이고, 거부·제재 문항의 예는 '내가 뭘 하든 마음에 안 들어하신다'이며, 허용·방임 문항의 예는 '내가 하고 싶다면 거의 뭐든지 다 하게 하신다'이다. 각 하위 척도의 Cronbach α 는 아버지의 경우, 온정·수용은 .94, 거부·제재는 .91, 허용·방임은 .7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온정·수용은 .95, 거부·제재는 .92, 허용·방임은 .84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14)

변 인	내 용	대상자*	백분율(%)
성 별	남	271	52.7
	여	243	47.3
학 년	1	89	17.3
	2	88	17.1
	3	86	16.7
	4	85	16.5
	5	81	15.8
	6	85	16.5
부 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3	.6
	중학교 졸업	7	1.4
	고등학교 졸업	119	23.2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17	3.3
	대학교 졸업	262	51.0
	대학원 이상	93	18.1
모 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3	.6
	중학교 졸업	11	2.1
	고등학교 졸업	181	35.2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26	5.1
	대학교 졸업	217	42.2
	대학원 이상	63	12.3
부 직 업	무 직	7	1.4
	단순노무직	1	.2
	피고용 기능공	63	12.3
	자영 상공업	155	30.2
	사 무 직	249	48.4
	관 리 직 전 문 직	1 12	.2 2.3
모 의 직 업	주 부	230	44.7
	단순노무직	14	2.7
	피고용 기능공	14	2.7
	자영 상공업	102	19.2
	사 무 직	141	27.4
	전 문 직	3	.6

*대상자가 514명이 되지 않는 항목은 무응답 때문임.

2) 또래 괴롭힘 가해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Austin과 Joseph(1996)의 가해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또래 괴롭힘과 전혀 관련 없는 3개의 보충문항(filler items)을 포함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 자신이 행한 부정적인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가해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아이들을 놀린다”이다. Cronbach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3)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Neary와 Joseph(1994)의 피해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또래 괴롭힘과 전혀 관련 없는 3개의 보충문항(filler items)을 포함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자신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피해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시당한다”이다. 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학급 단위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예비 조사는 1-6학년 18학급 중 학년마다 2명씩 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참고로 아동의 이해와 의미 전달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한 학년이 거의 끝나 가는 시기에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고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1, 2학년 아동들은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설명하여 설문의 이해를 도왔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의 학년차는 변량분석, 성차는 t-검증, 부모간의 양육행동의 차이는 paired t-검증을 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또래 괴롭힘의 유형별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의 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1)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학년별 차이가 있는가?

(1)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년별 지각 차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년별 지각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5, 508}=3.71, p<.01$). 아버지가 온정·수용적이라는 지각은 6학년이 가장 낮았고, 1-5학년의 지각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이라는 지각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5, 508}=8.35, p<.001$). 1학년의 지각은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6학년이 1학년보다 아버지를 덜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버지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5, 508}=2.69, p<.05$). 1, 4, 5, 6학년의 아동이 아버지의 허용·방임에 대한 지각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1, 2, 3, 5, 6학년의 아동이 아버지의 허용·방임에 대한 지각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따른 뚜렷한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년별 지각 차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년별 지각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이라는 지각에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_{5, 508}=3.13, p<.05$) 학년에 따른 차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 역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5, 508}=6.04, p<.001$). 3-6학년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같은 수준이었고, 2, 3, 6 학년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같았고 또한 1, 2학년이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제재를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5, 508}=4.22, p<.01$). 4-6학년은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하여 지각이 같았고, 1, 2, 5, 6학년이 어머니의 허용·방임에 대하여 지각이 같았으며, 1-3학년이 어머니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같게 나타나 학년이 높은 아동이 어머니가 덜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성별 차이

1) 부모의 양육행동 지각에 대한 학년과 성별의 상호 작용효과는 부모 모두에서 통계적 ($p<.05$)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년별 지각 차이

학년	M(SD)	Duncan	M(SD)	Duncan	M(SD)	Duncan
1	83.78(20.18)	b	30.19(14.00)	b	16.03(7.33)	a b
2	82.81(15.45)	b	23.98(9.56)	a	16.88(6.15)	b
3	아버지 84.20(14.71) F=3.71	b	아버지 23.27(9.84) F=8.35	a	아버지 17.27(5.62) F=2.69	b
4	온정·수용 85.58(14.37) p<0.01	b	거부·제재 22.06(8.23) p<0.001	a	허용·방임 14.52(5.07) p<0.05	a
5	81.31(13.75)	b	21.69(7.04)	a	15.57(4.36)	a b
6	76.22(15.47)	a	24.61(9.61)	a	15.48(4.70)	a b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년별 지각 차이

학년	M(SD)	Duncan	M(SD)	Duncan	M(SD)	Duncan
1	86.83(20.27)	b c	29.42(14.82)	c	15.54(7.47)	b c
2	81.52(17.10)	a b	27.03(10.36)	b c	14.72(5.39)	b c
3	어머니 85.58(17.07) F=3.13	a b c	어머니 24.42(10.85) F=6.04	a b	어머니 16.28(6.29) F=4.22	c
4	온정·수용 88.93(14.12) p<0.05	c	거부·제재 21.25(8.58) p<0.001	a	허용·방임 12.72(4.71) p<0.01	a
5	84.68(16.32)	a b c	23.12(10.81)	a	13.89(4.64)	a b
6	80.32(16.12)	a	24.20(9.44)	a b	14.08(5.02)	a b

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아버지의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t(512)=-3.11, p<.01]과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t(512)=-2.31, p<.05]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가 여아에

<표 4>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의 성별 차이

양육행동	성	M(SD)	t
아버지 온정·수용	남아	82.16(16.29)	.27
	여아	82.54(15.82)	
아버지 거부·제재	남아	25.69(10.38)	-3.11**
	여아	22.88(10.14)	
아버지 허용·방임	남아	15.83(5.43)	.58
	여아	16.12(6.00)	
어머니 온정·수용	남아	84.34(18.15)	.42
	여아	81.98(15.99)	
어머니 거부·제재	남아	26.25(11.76)	-2.31*
	여아	23.76(10.62)	
어머니 허용·방임	남아	14.43(5.71)	.52
	여아	14.70(5.89)	

*p<.05 **p<.01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아동의 부와 모에 대한 양육행동의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aired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동의 부와 모간의 양육행동 지각에 대한 paired t-검증

양육행동	M(SD)	M의 차	paired t
아버지 온정·수용	82.34(16.05)	-2.30	-3.65***
어머니 온정·수용	84.64(17.15)		
아버지 거부·제재	24.36(10.35)	-.61	-1.59
어머니 거부·제재	24.97(11.29)		
아버지 허용·방임	15.97(5.70)	1.41	6.30***
어머니 허용·방임	14.55(5.79)		

***p<.001

<표 5>에 의하면,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13)=-3.65, $p<.001$]. 아동은 부모 중 어머니가 더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에서는 부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513)=-1.59, $p>.05$].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에서도 부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513)=6.30, $p<.001$] 아동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경험과의 관계

1)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가 온정·수용적일수록 아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을 더 적게 하고, 아버지가 거부·제재적이면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허용·방임적이면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만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일수록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경

험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거부·제재적이면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일수록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어떠한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는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어($r=.35$, $p<.001$), 즉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의 형태를 가해, 피해, 가해/피해, 비관여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가해집단은 가해점수가 평균 이상이고 피해점수는 평균 이하인 아동으로, 피해집단은 피해점수가 평균 이상이고 가해점수는 평균 이하인 아동으로, 가해/피해 집단은 가해와 피해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인 아동으로, 비관여 집단은 가해와 피해점수가 모두 평균 이하인 아동으로 상정하였다(이민아, 1998; 이춘재·곽금주, 2000a, 2000b; Austin & Joseph, 1996). 이에 본 연구대상자 중 또래 괴롭힘 가해 아동은 126명(24.5%), 피해 아동은 50명(9.7%), 가해/피해 아동은 165명(32.1%), 비관여 아동은 173명(33.7%)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부모의 양육행동 지각에서의 차이

<표 6>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또래 괴롭힘 가해	-.23***	.13***	.04	-.21***	.13***	.15***	-	
또래 괴롭힘 피해	-.30***	.23***	.11***	-.31***	.23***	.17***	.35***	-

1. 아버지 온정·수용 2. 아버지 거부·제재 3. 아버지 허용·방임 4. 어머니 온정·수용 5. 어머니 거부·제재 6. 어머니 허용·방임 7. 또래 괴롭힘 가해 8. 또래 괴롭힘 피해

*** $p<.001$

<표 7> 또래 괴롭힘 유형별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의 차이

집 단	M(SD)	Duncan	M(SD)	Duncan	M(SD)	Duncan
가 해	81.66(14.84)	b	23.31(8.07)	a b	15.69(4.84)	a
피 해	아버지 83.08(15.30) F=24.98	b	아버지 25.78(13.63) F=8.04	b c	아버지 18.40(8.11) F=3.78	b
가해/피해	온정 · 수용 75.26(16.78) p<0.001	a	거부 · 제재 27.18(11.01) p<0.001	c	허용 · 방임 16.04(5.19) p<0.05	a
비 관여	89.38(13.24)	c	22.03(9.45)	a	15.40(5.77)	a

를 살펴본 변량분석 결과는 <표 7>하고 <표 8> 고 보고하였다.
과 같다.

(1) 또래 괴롭힘 유형별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의 차이

<표 7>에 의하면, 아버지가 온정 · 수용적이라는 지각은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3, 510=24.98, p<.001$). 가해/피해 집단에서 아버지가 온정 · 수용적이라는 지각이 가장 낮았고, 가해와 피해 집단은 아버지가 온정 · 수용적이라는 지각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여 집단의 온정 · 수용에 대한 지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거부 · 제재적인 양육행동 역시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3, 510=8.04, p<.001$). 가해/피해 집단은 가해집단보다 아버지가 거부 · 제재적이라고 지각하였다. 허용 · 방임에 대한 지각 역시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_3, 510=3.78, p<.05$). 가해, 가해/피해, 비관여 집단은 아버지가 똑같은 수준으로 허용 · 방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 집단은 아버지가 가장 허용 · 방임적이라

(2) 또래 괴롭힘 유형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의 차이

<표 8>에 의하면, 어머니의 온정 · 수용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또래 괴롭힘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_3, 510=19.75, p<.001$). 가해/피해 집단은 가장 낮게 어머니가 온정 · 수용적이라고 보고했고, 가해와 피해 집단은 어머니의 온정 · 수용 정도가 같다고 했으며, 비관여 집단은 어머니를 온정 · 수용적이라고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 제재에 대한 지각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_3, 510=7.29, p<.001$). 가해와 비관여 집단은 똑같이 어머니가 거부 · 제재적이라고 했고, 피해와 가해/피해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어머니가 더 거부 · 제재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 · 방임적인 양육행동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어($F_3, 510=5.69, p<.01$) 피해와 가해/피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어머니가 더 허용 · 방임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또래 괴롭힘 유형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의 차이

집 단	M(SD)	Duncan	M(SD)	Duncan	M(SD)	Duncan
가 해	85.94(15.10)	b	23.53(9.75)	a	14.47(6.02)	a b
피 해	어머니 83.30(16.53) F=19.75	b	어머니 27.64(14.18) F=7.29	b	어머니 16.18(7.18) F=5.69	c
가해/피해	온정 · 수용 77.45(18.45) p<0.001	a	거부 · 제재 27.64(11.58) p<0.001	b	허용 · 방임 15.47(5.70) p<0.01	b c
비 관여	90.94(14.75)	c	22.69(10.48)	a	13.27(4.97)	a

IV. 논 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학년과 성 그리고 부모간에 차이가 있는가?

학령기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달랐는데 아버지의 온정·수용과 거부·제재적인 행동에서 학년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6학년이 다른 모든 저학년보다 아버지가 덜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앞둔 최고학년인 아동을 좀더 큰 아이로 취급하면서 보다 더 적은 애정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1학년이 다른 모든 학년보다 아버지가 더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아버지는 아동이 취학 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자녀에게 더 제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아버지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에게 더 허용·방임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의 경우는 학년별로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서 분명한 학년별 차가 없어 보이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머니가 덜 온정·수용적이며 덜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덜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와 모 각각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직접적인 일상생활을 돌보기 때문에 한 어머니가 아동에게 다양하게 지각될 수 있는 반면 아버지는 어머

니에 비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 아동은 아버지의 단면적인 양육행동을 강하게 지각할 수 있겠다. 또한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실제로 학년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학년별 차가 분명할 수 있겠다. 이런 결과는 나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Finnegan, Hodes & Perry,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학령기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 모두를 거부·제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남아는 부모 모두를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는데 이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활동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부모로부터 제재를 더 받아 남아들이 이를 강하게 지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이수연(1985)의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와 Lytton과 Romney(1991)의 부모들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신체적인 벌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그리고 이연숙(2002)의 남아가 모로부터 더 많은 통제를 경험한다고 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보면 아동은 어머니가 더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더 허용·방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아버지가 더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자녀에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어머니보다 좀 더 허용적일 수 있고 자녀의 생활에 세세한 간섭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요약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학년(나이)간에 분명한 차이를 두어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 모두를 거부·제재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은 어머니가 더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특히 아버지는 더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에 주목을 요한다. 자녀양육에 부와 모가 다 필요하고 부모 양자간에 일치된 양육행동이 자녀의 훈육과 건강한 발달에 유의함을 생각할 때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보다 큰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된다.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경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해와 피해에 대한 집단 구분 없는 상관분석 결과, 부모가 온정·수용적일 때 아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은 안정적이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면서 또래로부터 인정을 얻어 또래 괴롭힘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Perry 등, 1988). 또한 이러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여 더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으로 행동하고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인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MacDonald & Parke, 1984).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부·제재적이면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걸거나 비효과적인 공격을 가하고,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가해 상대를 화나게 하여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기 쉽고, 또래들은 이런 상호작용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아 이들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해 이들은 따돌림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이점숙·유안진, 1999; Olweus, 1978; Perry 등, 1988; Perry 등, 1992). 즉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하고 제재적일 때 자녀의 공격성은 발달되기 쉽고 이러한 공격성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아동에게 외면당할 수 있어 또래 괴롭힘 피해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았고,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 경험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안재진, 2002; 이경님, 2001; Olweus, 1993)와 일치하고 또한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어머니를 둔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다는 연구(Patterson, Capaldi & Bank, 1991)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적이고 무관심한 양육이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Finnegan 등, 1996; Olweus, 1978). 특기 할만한 것은 아버지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 자체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로 분명한 설명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지만 부모님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를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행동을 조장 및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Ladd & Ladd, 1998; Tom, Abou-ezzeddine, Toblin, & Stevens, 2004).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는 서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어 또래 괴롭힘 경험 정도에 따라 또래 괴롭힘 집단을 세분했는데 집단별로 부모의 양

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비판여 집단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를 모두 많이 경험한 가해/피해 집단이 부모가 덜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온정·수용성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친구를 괴롭히지도 않고 또한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아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 줄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해와 가해/피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모가 더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부모가 거부·제재적일 때 아동은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여 피해 아동이 되거나 가해와 피해 모두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이지원, 1999)와 맥을 같이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거부와 엄격한 제재가 자녀의 공격성을 발달시키고, 공감과 이타심, 협동심과 같은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방해하며 (Eisenberg & Fabes, 1998), 이러한 공격적 성향은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친밀감이나 공감의 결여와 연결되어 또래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공격당하기 쉽다는 연구(Finnegan 등, 1998; Fuhrman & Holmbeck, 1995)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냉정하고, 무반응적이고, 비일관적일수록 아동은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순종적이지 않다고 한다. 양육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애정, 합리적인 지도행동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어 적응을 도와주는 한편,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태도는 적합한 설명이 거의 없고 애정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사회적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거

나 좌절감을 겪고 자아 가치감이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 비우호적인 공격성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한다(Chamberlain & Patterson, 1995; Davies & Cummings, 1994; Gottman & Katz, 1989).

아버지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을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가 되기 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가해/피해 집단은 어머니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이러한 아동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불안과 위축을 많이 나타내어 또래로부터 만만한 상대가 되고 이러한 성향은 공격자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또래 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주장성이 적고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가까이 대해주고 지지해 주게 할 수 있으나 또래관계에서 가해하는 이를 “나약함”으로 인식해 버릴 수 있다(Ladd & Ladd, 1998). 또한 아동의 연약성을 인식해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서 자녀의 대인관계에 제한을 주어 위험을 줄이려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의존성이나 연약성을 강화시켜 중요한 사회적인 기술이 익혀질 사회적인 상황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원만한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신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자녀의 또래관계가 원만할 수 있고, 거부·제재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또래관계에서 발현되거나 부모 자신의 행동이 모델이 되어 자녀의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 있고, 지나치게 허용·방임적이면 자녀가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요구되는 사회적인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 도시의 일부 아동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자료수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 경험을 아동의 지각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가 있어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그리고 친구의 보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면접법 및 관찰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의 또래 괴롭힘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또래 괴롭힘 경험과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경험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또래 괴롭힘 같은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참 고 문 헌

권연희 ·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도현심(1999).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8-322.

박성연 ·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희옥(2001).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 피해 ·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 · 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2(3), 49-61.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 피해 ·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 · 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3(3), 1-15.

심희옥(2003).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교사보고에 따른 문제행동과 유능성 :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4(2), 79-92.

안재진(2002).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원경 · 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7.

왕따 갈수록 지능화, 폭력 갈수록 조직화(2004. 3. 3). 동아일보.

‘왕따’ 투신 초등학교생 끝내 숨겨(2001. 12. 1). 한국일보.

이경님(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된변인간의 인과관계 :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1-52.

이규미 · 문형춘 ·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이덕순(1980). 아동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민아(1998). 초등학교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 자아 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

- 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숙(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점숙 · 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지원(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재 · 광금주(2000a).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65-80.
- 이춘재 · 광금주(2000b).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 실태와 특성. 서울 : 집문당.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태연 · 김인경 · 김은정(2001). 집단 따돌림의 측정 방법에 따른 행동평가의 차이 :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 145-159.
- 한종철 · 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103-114
-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 · 행동문제와 부모의 수용 · 거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erkowitz, L.(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 Bjorkqvist, K., Ekman, K., & Lagerspetz, K.(1992). Bullies and victims : 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iatry*, 23, 307-313.
- Block,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hamberlain, P., & Patterson, G. R.(1995). Discipline and child compliance.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IV(PP. 205-225)*. NI : LEA.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ishion, T. J.(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Eisenberg, N., & Fabes, R. A.(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307-778). New York : Wiley.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ce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78.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8). Victimization by peers :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1076-1086.
- Fuhrman, T., & Holmbeck, G. N.(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793-811.
- Gottman, J. M., & Katz, L. E.(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 Peer victimization :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 Ladd, G. W., & Ladd, B. K.(1998).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50-1458.
- Loeber, R., & Dishion, T. J.(1984).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 Family conditions influencing cross-setting consist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759-768.
- Lytton, H., & Romney, D. M.(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67-296.
- Ma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55-1277.
- Neary, A., & Joseph, S.(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 183-186.
- Olson, S. L.(1992).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nd peer rejection in preschool children : A social systems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327-350.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 Bullies and their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 Hemisphere.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ur in adolescent boys :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Olweus, D.(1984). Aggression in thei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pp. 57-76), NY : John Wiley & Sons.
- Olweus, D.(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5-341). Hillsdale. NJ : Erlbaum.
-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1991). Two paths to delinquency : The early and late starter models,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139-169).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 U. Sc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301-32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gby, K.(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 501-513.
- Rubin, K. H. & Asendorpf, J. B.(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WJ : Lawrence Erlbaum.
- Russell, A., Hart, C. H., Robinson, C. C., & Olsen, S. F.(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ur with peers :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 group.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4), 665-675.
- Smith, P. K., & Myron-Wilson, R.(1998).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405-417.
- Tom, S., Abou-ezzeddine, T., Toblin, R., & Stevens, K.(2004, July). Peer victimization and the home environment :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ISSBD), Ghent, Belgium.
- Troy, M., & Sroufe, L. A.(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22일 채택